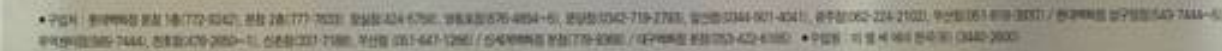


제1상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2주에 걸쳐 100%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며, 알레르기 테스트, 프루프 프리, OTC Clinique Laboratories, Inc. www.clinique.com



- M.T. 가서 여자만 셀거지 시키면 '여자인? 남자애들도 같이 해야지' 라고 말해야지 M.T.를 안 가나?
-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여학생은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여학생은 공부 안해도 되나요?' 라고 따져야지 수업을 안 듣나?
- '예쁜여자 후배 많이 들어왔나?' 라고 남자 선배들이 얘기하면 '남자도 후배데요' 라고 말해야지 입학울 안 하나?
- 전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면 '아저씨, 지금 어디만지는 거예요?' 라고 망신을 줘야지 전철을 안 타나?

로그인 연세총여 제12대 총여학생회

멋진 피부는 만들어 질 수 있는가?



■ 크리닉은 ...

뉴욕시 5번가의 한 주소지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가지 피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안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어왔습니다. 그 곳은 바로 크리닉 피부 자문의들의 연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스킨 케어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그 당시 피부 자문의들이 고안해 냈던 3-스텝 스킨 케어 시스템은 지속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계속 보완되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리닉 연구실의 주임 연구원들은 전세계 소비자들이 3-스텝 스킨 케어 시스템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크리닉입니다.

■ 크리닉 3-스텝은 ...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름다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2번씩 크리닉 3-스텝 스킨 케어 시스템을 만나고 있습니다.

- 스텝 1,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웨이셜 솜)
- 스텝 2, 각질제거로 피부를 매끄럽고 투명하게 살려주고, (클래리파잉 로션)
- 스텝 3, 수분공급으로 피부에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줍니다.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크리닉의 3-스텝 스킨 케어 시스템은 멋진 피부와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크리닉 매장으로 오십시오.
피부상담 후 그에 알맞은 샘플을 드립니다.

■기간: 2월 18일 ~ 2월 27일까지



CLINIQUE

Allergy Tested.
100% Fragrance Free.

“여러분의 입학,
라이코스가 축하드려요”



www.lycos.co.kr

땡땡학번 새내기 여러분! 이제 인터넷은 라이코스로 시작하세요

검색은 물론 무료 이메일, 무료 홈페이지, 미팅, 게임 등 재미있는 서비스가 가득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난 선배님들, 동기들에게 라이코스 메일로 인사를 해보세요.

검색 처음 써보는 레포트,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 라이코스 검색을 보세요. 방대한 수천 개의 자료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채팅, 소문 등 다양한 즐거운 라이코스 콘텐츠로 공간 시간도 구경입니다. 라이코스 미팅에서 사귀어 연인도 만들어 보세요.

메일 대학생이라면 이메일은 기본. 라이코스에서 무료 이메일을 만드세요. 전국은 물론 세계의 누구와도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뽀는 새내기는 자기소개도 홈페이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멋진 홈페이지에 나를 보는 친구들의 눈길까지 달라집니다.

클럽 보고 또 봐도 즐거운 풍경을, 알뜰보기 힘든 동향들, 또는 그날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귀어 클럽을 만드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게시판 즐거운 모임이 많은 대학생들, 각 모임의 게시판들 라이코스에 만드세요. 게시판만 확인하면 가깝파티, MT 등 어떤 이벤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절 이 싫다고
중이 떠나랴...?



- M.T. 가서 여자만 설거지 시키면 '여자만' 남자애들도 같이 해야지' 라고 말해야지 M.T.를 안 가나?
-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여학생은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여학생은 공부 안해도 되나요?' 라고 따져야지 수업을 안 듣나?
- '예쁜여자 후배 많이 들어왔나?' 라고 남자 선배들이 얘기하면 '남자도 후배예요' 라고 말해야지 입학올 안 하나?
- 전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면 '아저씨, 지금 어디만지는 거예요?' 라고 망신을 줘야지 전철을 안 타나?

로그인 연세총여 제12대 총여학생회

Log

● 로그인 연세총여 ●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접속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in

제12대 총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냐고 누군가 물어온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써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선에 나를 내맡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여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대로 놓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술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색한 농담 속에서, 남자 선배들로 가득 찬 과방의 답답한 공기 속에서, 기습적으로 컷전을 파고드는 교수님의 성차별적인 발언 속에서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공기를 박차고 나아가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기를.

여성으로서 나 자신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이 가능한 열린 광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친구들이 모인 곳.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는 세상을 고민하고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메아리가 존재하는 곳.

그 곳에 바로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상의 힘겨움에 부딪혔을 때 먼저 주눅들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나의 주인이 나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바로 당신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부모성 함께쓰기'란?

A 이제까지 묻혀져 왔던 내 절반의 피, 어머니의 자리를 찾아드리고자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쓰는 운동입니다.

“의 엄마, ‘#’의 아내”란 이름으로만 불렸던 어머니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나의 어머니의 이름, 역사를
나 스스로도 그리고 날 부르는 다른 아들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이름이 ‘강정임’이고 어머니의 성이 ‘김’이라면
나는 ‘강김정임’ 혹은 ‘김강정임’이 되는 겁니다.
성을 조합했을 때 부르기 쉽지 않거나 이상한 조합이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 대신에, 외할머니나 증조할머니의 성을 붙여도 됩니다.

Q 그러면 만약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의 성이 4자가 되나요?

A 우리는 ‘부모성 함께쓰기’를 행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적상으로 아버지 성만 사용하는 것이 성차별이니까
어머니 성도’라는 취지였다면
역시 아버지의 성을 따른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지도 않았겠죠?

부모성을 함께쓰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 자식을 낳는다면
부모의 성 두자 중에서 원하는 성을 한자씩 따서
자식의 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진박’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윤설’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식의 성은 ‘진윤’, ‘박윤’, ‘진설’, ‘박설’,
‘윤진’, ‘윤박’, ‘설진’, ‘설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오리엔테이션 행사 소개

늦으면 안돼 우리는 칼 시작이야.
점심먹고 오면 딱 맞겠네..?
나는야. 신나게 총여 행사 간다네.
뽕뽕라뽕뽕 뽕뽕뽕~~~~

2:00-2:15

총여 집국

총여 소개

뚝지, 이안. 다다. 시소. 뽕. 뽕뽕.
헤라, 옥수, 그리고 뚝두루뚝까지!

총여가 뭐야? 오뽕?
우리학교에는 총여학생회라는 것도 있나보지?
아..아.. 근데 그거 뭐하는 데야?
너 아니? 아니. 몰라.
어? 저기 가면 말해준다.
총여가 어떤 곳인지.
가보자!

헉헉. 숨막혀.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여성 자치단체가 있었나?
어? 아. 잘봐. 우리단체에도 있나봐.

feminary, beyond....

자치단체 소개

2:15-2:30



낮은 목소리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혹시 알고 있는지? 이 영화가 뉴욕 여성영화방송인합회의 '1979-1998 세계 여성영화 23선'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있는지? 그럼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변영주라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는지? 자, 우리 가서 들어보자구.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지 말아.

변영주감독

2:30-3:20

강연

너 말야. 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릴거라고 생각했지? 대학에 합격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테지? ..그치만, 과연 그럴까? 너 말야. 잘살고 싶으면 용기를 내야해. 하지만 그건 결코 아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야. 네가 서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발자국, 아니, 반발자국만 나가면 되는 일 이리구. 그래도 겁이 나?
자, 잘 봐. 우리가 있잖아.



오 예~~ 꾸아꾸아. 나도 참한번 멋있고 신나게 뽕보고 싶었다 이거야. 어? 너도 그랬니? 이리와, 우리 그래서 모였잖아. 여지도 힘합댄스 멋있게 할 수 있다구.

Iwill

엔딩 공연

3:20-3:30

자, 이제 끝이리구. 어? 벌써. 웬.. 그럼 안되는데. 이렇게 아쉽게 끝낼수는 없다구. 아.. 잠깐만.. 잠깐만.. 잇! 저게 뭐야.. 이런이런.. 이런걸 말도 없이 해버리다니!

기대하세요. 짹짹 공연!



● 지치단체 들여다보기 ●



“ 날아라 메밀잠자리! ”

파란 가을 하늘을 장식하듯 곱게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고추잠자리는 수컷을 이르는 이름일 뿐이고 암컷 잠자리는 메밀잠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이학계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학생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자도 이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평등 논리를 넘어서, 이학공부를 하는 여학생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느껴야만 하는 벽을 없애야 한다. 여학생이라서, 여학생이니까, 변명이나 오해는 이제 그만. 어떤 여학생도 이학공부를 하는 여학생으로 불리기 보다는 이학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불리고 싶을 것이다. 이제 메밀잠자리가 날아오른다. 고추잠자리에 가려 보이지 않는 암컷잠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과대학 여성위원회(준)

이과대학에는 10년간 단과대 유일의 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단체로서의 활동은 여학생회로서의 의무 및 활동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고, 여성위원회로서 활동하는 것이 이과대 여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더 많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과대학의 여학생회를 접는 대신 여성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과대학 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구나무

"물구나무"는 여성 신학을 공부하는 신대 내 여학우들의 소모임입니다.

물구나무는 탁상공론에서 그치고 마는 소수 엘리트들의, 그리고 남성들의 전유물로서의 신학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여성'으로 대변되는 약자를 돌아보는 신학을 하고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97년 첫 일년을 되돌아 이제 5년. 눈앞에는 당장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울만한 큰 가지도,

행기를 발하는 꽃도, 맛난 열매도 아니 없지만, 온 세상을 덮을 큰 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차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여성모임-마주잡기

신데렐라의 환상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초려한 누더기가 화려한 드레스로 생쥐가 백마가 되었듯이,

'내가 남자였다면, 혹은 내가 여자였다면' 하고 한숨을 쉬고 있진 않습니까?

이미 당신은 당신의 **성**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찾아갑시다.

나와 나의 마주잡기, 나와 너의 마주잡기! 이제 시작입니다.

박 정 은 (인문97) 016-723-5815 everwith@hanmail.net

두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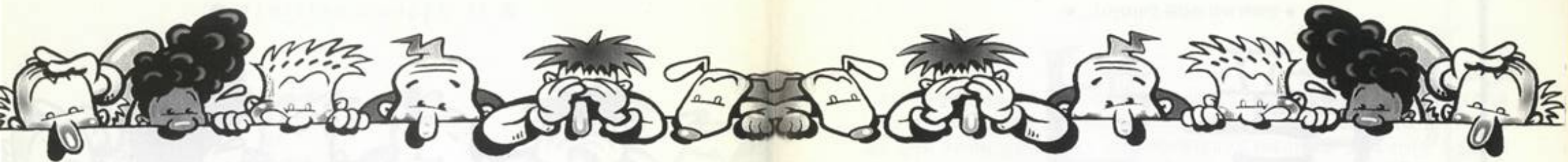
'여성들이여,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자기를 찾게되는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98년에 창간된 여성자치언론 두입술은 매 호 '연애', '독립', '구두', '군대와 사나이' 등의 테마를 중심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여성의 일상에 문제의식을 담아 즐겁고 유쾌하게 드러내었습니다. 2000년 5월 말에 발간 예정인 두입술 4호를 기대해 주세요.

동쪽

법대 성연구 모임 동쪽 - 동그래지는 온쪽이 - 는 이제까지 반쪽으로만 치부되었던 여성, 남성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완전한 인격체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96년도에 만들어진 동쪽은 법대에서 성폭력학교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작은 영화제를 열었었고요, 올해는 법여성학에 대한 세미나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eminary

Feminary는 여성학 자치도서관이라고도 합니다. feminary에는 여성학의 기본적인 입문서부터 다른 학문과 연관되어 여성학의 머리카락이라도 보이는 책까지 없는 책 빼고 다 있습니다. 책만 빌려주는 곳이나고요? 당산 아니죠. 올해 저희는 강좌개설, 세미나, 커리큘럼, 발간, 학내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 등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학, 여성운동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

Feminary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새내기 여러분

인문관 1103호 여성연구소의 문을 두들기세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여성주의 문화 실험모임 '움'

'노래 할래, 춤 출래?' '그럼 움으로 와'

... 근데 너 여자 맞지?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도록 짜릿한 세상을 위하여 여성주의 문화로 일상을 해집어봅시다. 움들 곳이 필요한, 삶이 맘에 들지 않는 이들이라면, 꿈꾸고 싶은 그대는 바로 움들이!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WELCOME TO THE MOVAN'

나는 문우인이다.

나는 모반인이다.

나는 여성주의자다.

.....이제 나는 모반(謀反)을 꿈꾼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Beyond... '~을 넘어서'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를 우리 Beyondian들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대우가 존재하는 현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어섬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평등의 새땅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나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 현실을 바라보는 불린자로서의 여성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넘어섬입니다. 여성의 관점을 명백히 드러내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그에 대한 주위의 반응들을 접하는 것은 정말 고달픈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진정한 '넘어섬'이 없이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다른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주의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든든한 지지자가, 통지가 되주길 바랍니다.

전자 & 기전 56 여학우 모임

공대에서 살아남기? 라고 말하죠. 여학생들이 적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참 불편하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여학우들...같이 공부하고 같이 느끼 여성들끼리의 모임이 절실하죠. 저희 기전 56여학생 모임은 전자과 여학생 모임이 기반이 되어 학부제로 바뀌면서 기전56반도 합세하여 전자 & 기전 56 여학우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만나서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갖죠. ~

참 한 연니가 결혼을 했으니...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진로, 직업, 사는 이야기... 같이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모임이 바로 우리 전자 기전 56 여학우 모임입니다.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질문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폭력을 논하는 것은 어느덧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야만성을 규탄하고 성폭력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에 선뜻 동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각은 다시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성폭력=강간 혹은 강제 성추행이라는 등식을 혹여 당신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정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강간이나 성기삽입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정의 내려질 수 있고-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삽입되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정말 '죽을 때까지' 반항을 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성폭력의 유무가 입증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이 자신의 정조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남성 중심의 성문화의 결과물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그 공포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증명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폭력을 나와는 무관한 일로 간주하게 되고, 성폭력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가해자에 의한 어떤 불행한 피해자의 일로 치부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성폭력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의 결과물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 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성폭력을 바라볼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pc통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남성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고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기중심의 편협한 성문화의 소산으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 일 수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가려져 있어서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대학사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성폭력이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자율권 침해라고 규정할 때, 성폭력이 우리 모두가 은연 중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 속의 문제로 접근될 때, 대학은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의 공간이라 자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학생들이 보기 싫게 무슨 담배냐"라고 질책하는 교수님의 말에서 "넌 무슨 여자가 치마도 안입고 다니냐?"라는 선배의 말에서 나의 성적 자율권은 이미 특정 성에 대해 그들이 가진 성적역할과 모델에 따라 제한되고 맙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러한 일들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바꾸는 일과 분리되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대학사회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대학공간의 공동체 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폭력을 미연에 예방하는-나아가 근절시킬 수 있는 최상의 길일 것입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마련하고 나아가 성폭력 학칙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이며, 성폭력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단순히 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뼈뿔어진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대학을 막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입생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대학이라는 공간을 올바른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새터에서의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 학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성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의 기준이 성폭력 학칙인 것입니다.

우울하고도 슬픈, 바보스럽고도 위험한...

- 군가산점제도 위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 투입술 편집위원 박진철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들에게 일정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강제 징집 군복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군미필자들의 시각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불과 영점 몇점 차이인 상황에서 과목마다 3-5점씩 가산점을 주어 실질적으로 합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이다.

0 낙천·낙선 운동을 비롯하여 바야흐로 정치가 이곳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의 흐름엔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위험스러움이 눈에 들어온다. 사정인즉슨,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르르 떨며 되뇌어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반복되는 논리 혹은 감정이 있으니, “군에 가보지 못한 여성은 군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1 경험으로 생각건대 이 주장은 이해될 만하다. 고생도 고생이거니와 2년여 동안의 외로움은 정말이지 지독하다.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군미필자들이 친구와 애인을 떠나 보내거나 제대한 선배들에게서 듣는 얘기로는 아무리 해도 군생활의 아픔이 머리로 이해될 수는 있을지언정 가슴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2 남성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해도 머리로 알 수 있을 듯한 장애인과 여성들의 아픔 중 하나가 아마 취업문제일 것이다. 똑같은, 때로는 더 높은 학점을 가지고서도 남자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이 안되는 슬픈 여성들이 있다. 학점을 따는 것만큼의 노력을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다듬는 것에 할애해야만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직을 한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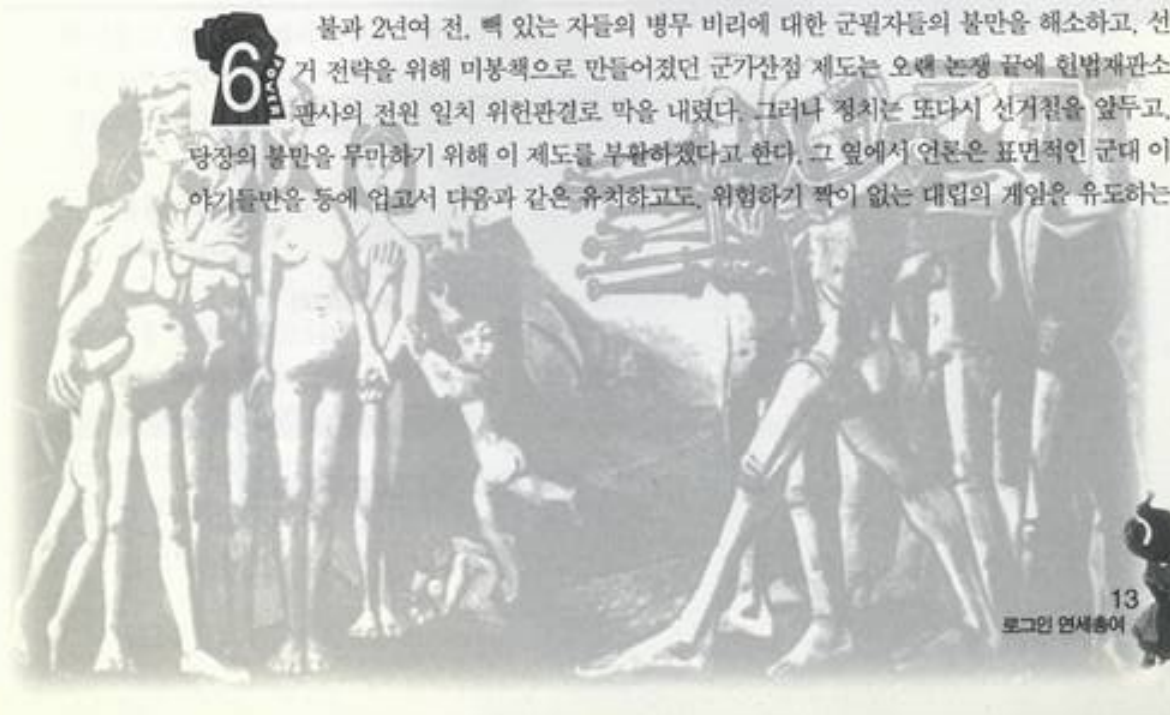
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비서직이나 잡일 등만을 요구하는 곳이 태반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먼저 해고당하는 것 또한 여성이다. 장애인에 대한 심정적인 동정과 제도적인 배제라는 이중적인 위선은 아주 고질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라는 편견만으로 이루어진다.

3 군가산점 논란의 표면적인 딜레마는 이렇게 보인다. “여성들의 취업은 너무 힘들고 취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회평등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쪽의 주장과, “군에 가보지 못한 여성은 절대로 군대를 알 수 없다”는 끝간데 없는 화답. 취업기회가 너무 불평등하다고, 군대가 너무 괴롭다고... 미궁일까? 그 이전에, 문제는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란과 성별대립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허구성이다. 사실은 군필자들의 불만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강제징집과 인권유린의 군대에 대한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서로간의 대립으로 부추겨지고 보도된다는 것이다.

4 양쪽이 모두 피해자니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하자는 건 바보, 왕바보다. 한 발자국 양보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군대문제와 취업문제는 전혀 다른 지반 위에서 각각의 원인을 가지며, 둘 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5 허구적인 성별간의 대립에서 위험스러워 보이는 건, 군 생활의 경험에 대한 힘들이, 애초에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있어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이었던 취업 전선으로 옮겨져, 이들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군생활에 대한 불만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군대까지 앞세운 이유로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해소한다는 점이다. 가산점 제도라는, 기실 턱도 없을 군생활에 대한 보상이라는 허울조차 그 보상의 내용이 고스란히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 박탈이라는 희생 위에서 얻어진다는 점이다.

6 불과 2년여 전, 뻥 있는 자들의 병무 비리에 대한 군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선거 전략을 위해 미봉책으로 만들어졌던 군가산점 제도는 오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 판사의 전원 일치 위헌판결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는 또다시 선거직을 앞두고, 당장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한다. 그 옆에서 언론은 표면적인 군대 이야기들만을 등에 업고서 다음과 같은 유치하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립의 계일을 유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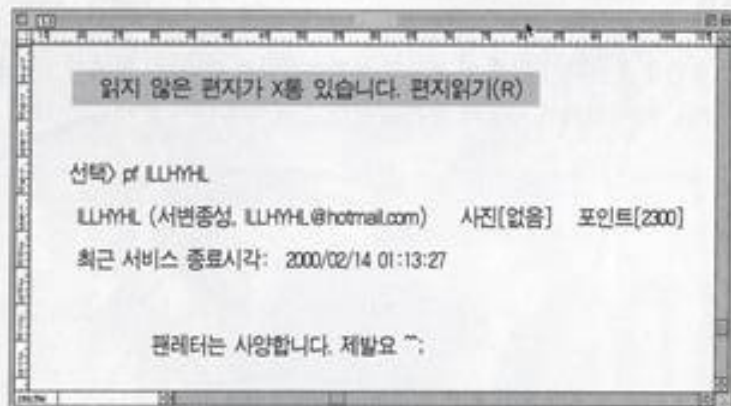


듯하다. 누구의 아픔이 더 큰 아픔인가? 누가 더 슬프는가? 작은 아픔은 더 큰 아픔 앞에서는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해야 한다는 듯이, 작은 아픔을 더 아프게 하면 큰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듯이. 실상 누구도 보상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여성의 일생을 담보로 남성의 심리적인 보상밖에 되지 않는 허구로서...

7 얼마 전에 남성들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여성과 장애인들도 군대가야 된다는 명분으로 몇몇의 남자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내었다. 현실성 없는 이러한 주장은, 어떤 의도일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자신에게는 이득이 될 것 없지만, 여성과 장애인들에겐 치명적인 문제를 안기고야 말겠다? 위로되지 못하는 화풀이로 장애인과 여성을 희생양 삼겠다? 남녀의 절대적 평등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단지 군가산제 부활을 위한 유세용 제스처라면, 차라리 다음과 같은 주장에 배팅을 걸겠다. 이 나라 군대와 지배층의 반이 여성이었다면 군대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전세계 군대와 지배층의 반이 여성이었다면 오래 전에 전쟁은 사라졌을 거라고...

8 여성은 군대를 모른다는 고집스런 주장 위에서 이렇듯 우울하고도 슬픈, 바보스럽고도 위험한 대립만을 끝간데 없이 계속해야 한다면, 역시나 우울하고 슬픈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이 담겨있을 다음 목소리만을 접하게 될 뿐이지 않을까?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 가보지 못한 당신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사이버 성폭력



(D씨가 통신을 그만둔 사연)

“오늘은 팬레터 몇 통이나 받았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통신을 하던 친구와 서로 나눴던 말입니다. 서로 '배우' 씩씩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이렇게 -_-;;)

제가 연예뉴스에서나 듣던 '팬레터'를 받는 유명인 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가 가까이 '팬레터'라 부르는 것을 뉴딜레니엄을 맞이하는 즈음에 편지함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것도 서로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비교해가면서요.

작년 말 군가산제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노골적인 여성비하.. 욕설.. 헐박.. 성폭력적 글.. 게시판 가득 채워가는 이러한 글들을 보고선 차마 글을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와 논쟁을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말한 그 '팬레터'였습니다. 욕설과 폭력적인 언어로 가득찬 메일과 쪽지들이 매일매일 편지함을 채웠나갔죠.

제 주장을 비판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메일도 있긴 했지만.. 배우 소수였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 통신에 접속하면 처음에 뜨는

'읽지 않은 편지가 X통 있습니다. 편지읽기(R)' 라는 메시지는 가슴 설레는 기대보다는 '오늘은 또 어찌려나..' 라는 두려움을 앞서게 했죠.

www.lecafe.co.kr



"대학졸업까지
르까프가 책임 지겠습니다."

「또 하나의 르까프」 탄생기념-

르까프 "평~생 장학금" 대축제

1억 5천여만원의 무제한 장학금과 르까프상품권,
그것뿐만이요 nCD·DNA목걸이·브로마이드세트와
학용품세트를 드리는 다채로운 사은품행사까지-
지금 르까프 매장으로 오세요.

축제 하나! '평생 장학금을 잡아라!'

대상: 르까프 제품 30만원 이상 구입 고객
(30만원당 1매씩 용모권 제공)

일정: 2000. 1. 24 ~ 2000. 3. 31

내역: 1등(1명) - 평생 장학금

(대학졸업까지 평균납입액 (96교육통계연보·교육부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28,369,100원)

2등(5명) - 500만원 장학금

3등(50명) - 100만원 장학금

르까프상품(1,000명) - 르까프 5만원권 상품권

*장학금부담 세액 본인부담

추첨: 4월 20일

발표: 4월 28일(스포츠신문, 르까프 홈페이지)

축제 둘! 'nCD, 목걸이를 잡아라!'

대상: 또 하나의 르까프 제품 또는 르까프 Sack 구입 고객

행사일정: 2000. 1. 24 ~ 3. 31

행사내역: 3가지 관측을 중 택일, 선착순 증정

상품내역: H.O.T 브로마이드 5장 세트(50,000명)



H.O.T nCD(10,000명)

H.O.T DNA 목걸이(10,000명)



축제 셋! '스쿨백 선물을 잡아라!'

대상: 르까프 덩키 스쿨백 구입 고객

일정: 2000. 1. 15 ~ 3. 31

내역: 학용품세트 선착순 10,000명 증정



H.O.T펜지 / H.O.T학용품 / H.O.T연필 / H.O.T메모장

"엄마, 대학졸업때까지
등록금이 몽땅 공짜래요!"



CAE

www.lecafe.co.kr

UNITEL

유니텔 00학번,
5가지 특혜를 잡아라!



2개월 무료는 기본! 4년동안 유니텔 이용료 30% 할인! 유니텔 2000학번 특별우대

00학번을 위한 뽕뽕한 입학선물

넷 AB 1+1개월 무료(O.T참석자에 한함)

동 AB 4년간 유니텔 이용료 30% 할인(단 유니텔 표준형 한함, 유료정보 별도)

넷 AB 개인ID를 4개나...(go MULTIID) 넷 AB 신세대 명함(신청자 전원 go OT2000)

다넷 AB 인터넷무료 홈페이지 계정 40M

유니텔 2000출시기념 이벤트
go 200man

● 시드니 올림픽 10만원을 잡아라!

30일 300만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여이 금액 15개 이상을 파는 주점을 통해
유니텔 신규 가입자의 기존 가입자 중 2000년 주점을 4개씩만 지급한다.
본인 이름이 0000는 시드니 올림픽 기념, 지출 도전자로
*본인 이름 앞뒤: 0000 0000 0000 *본인 이름 앞뒤: 0000 0000 000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탐나는 경품! 유니텔 2000 키즈 키즈

2000년 유니텔 전용 단말기 5000대 이상을 파는 주점을 통해
유니텔 신규 가입자의 기존 가입자 중 2000년 주점을 4개씩만 지급한다.
본인 이름이 0000는 시드니 올림픽 기념, 지출 도전자로
*본인 이름 앞뒤: 0000 0000 0000 *본인 이름 앞뒤: 0000 0000 000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유니텔의 특별한 서비스

● "유니텔이 5,000원!" 내게 맞는 요금제 (go chengye) ● "스쿨백 내비전을 위한 최정산 원리(25000원)" A3000스쿨(go cyberschool)
● "스쿨백 내비전을 위한 최정산 원리(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 "스쿨백 내비전을 위한 최정산 원리(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유니텔 보너스(25000원)

유니텔 1개월 무료 CD신청: (02)2191-3456 가입 및 1개월 무료이용 CD번호: OneShot 018 전국대리점, 한빛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지정

CD신청: (02)2191-3456 *이동통신: 한국(02)2191-3456, 지점(02)2191-3456, *가입신청: (02)2191-1111 *요금문의: (02)2191-1234 *http://www.unitel.co.kr

스쿨백 내비전

UNITEL



CHARIOT(체리엇)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경주용 이륜 마차였던 전차를
뜻하며, 고대 용사들의 용맹함과 신성한 스포츠 메시지를 전달하는
본격적인 아메리칸 스포츠 편집 매장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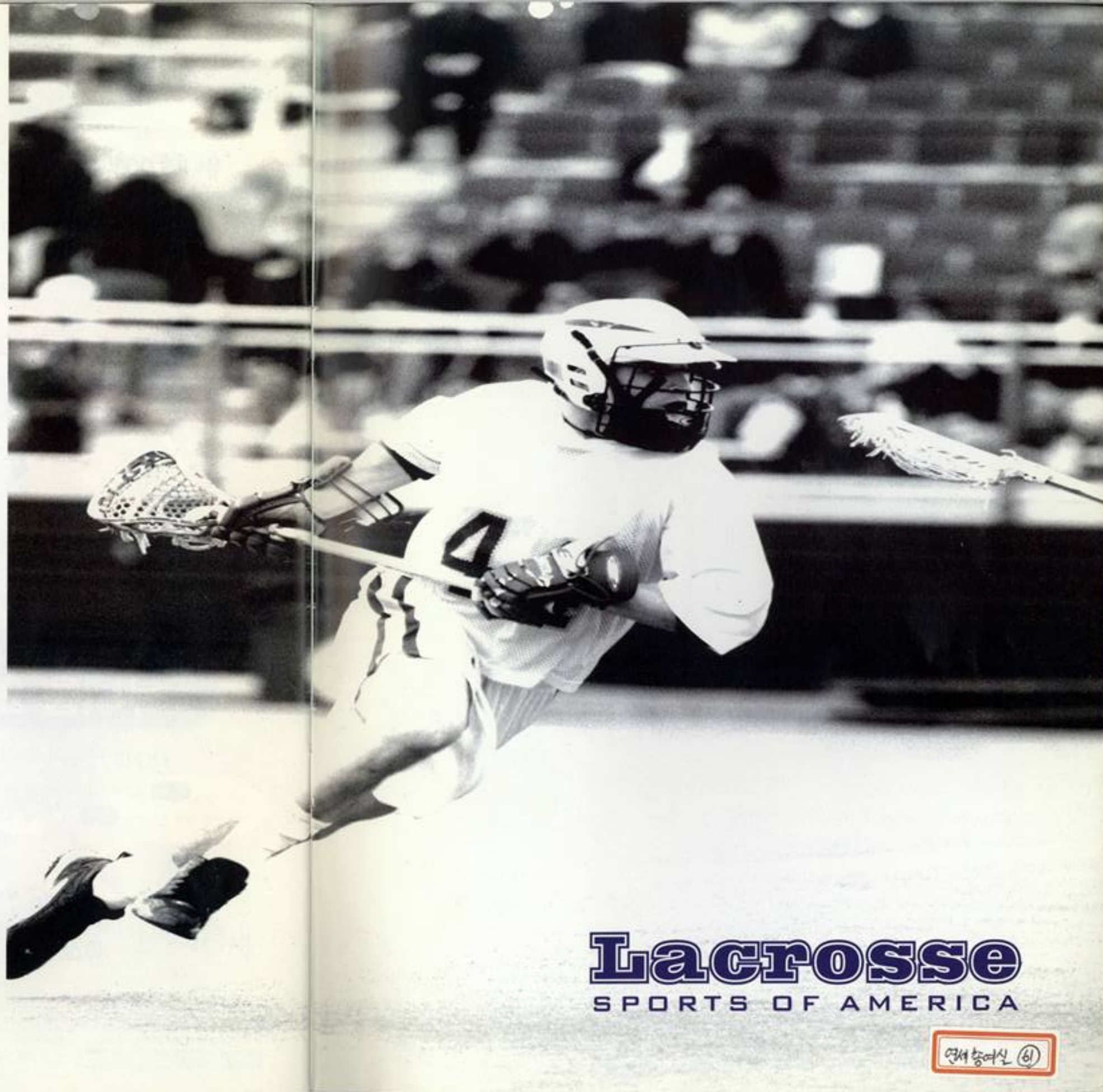


Lacrosse



Sports Themed Multi Shop
Edited for Customer Convenience

TEL. 02 512 6063



Lacrosse
SPORTS OF AMERICA

연세홍여신 (61)